

30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93.56	↓ 코스닥	644.78
	(-69.68)		(-17.90)
↑ 금리 (국고채 3년)	3.831	↓ 환율 (원·달러)	1438.80
	(+0.031)		(-7.90)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7월 31일 금요일

LG전자
2분기 역대최대 실적
로봇·AIDC 등 탄력
02

삼전 영업이익 89.5조 반도체서 89.2조 벌어

2분기 메모리사업 호조 ‘최대실적’
매출 28%, 영업이익 56% 증가
반면 DX 영업손실 8000억 기록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갈아치웠다. 메모리 사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전자 실적을 견인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AI 중심의 반도체 수요 강세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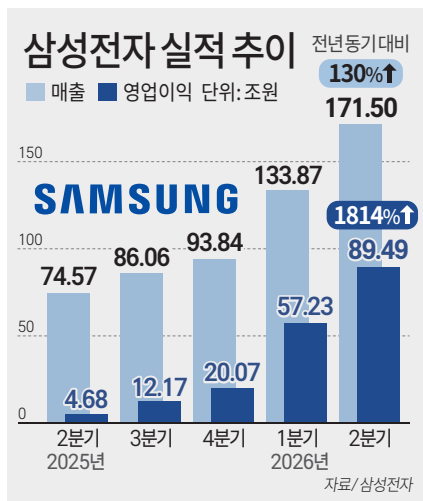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171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은 전분기보다 28%, 영업이익은 56% 증가하며

모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주당 순이익은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1만849원으로 전분기 대비 52% 증가했다. 특히 실적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이끌었다. DS부문은 매출 127조5000억원, 영업이익 8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메모리 사업은 에이전틱 AI 확산에 따른 서버용 제품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HB M4 공급을 확대하고 업계 최초로 HBM4 E 샘플을 출하하는 등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강화했다.

시스템LSI는 전반적인 수요 둔화에도 모바일 SoC와 센서 판매 확대에 힘입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파운드리 사업은 HBM 베이스 다이와 미주 고객 중심의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다. 반면 디바이스 경험(DX)부문은 매출 48조원, 영업손실 8000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경험(MX)사업은 갤럭시 S26 시리즈와 A시리즈 판매 호조로 매출은 늘었지만 부품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3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연금개혁·가상자산 규제 해소 기대감

22대 국회 하반기 본격 가동
투자자 보호법 입법에도 ‘관심’

22대 국회 상임위가 본격 활동에 돌입하면서 금융부문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연금개혁, 가상자산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금융 현안이 쌓여 있어서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 보호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22대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 ‘하후상박 기초연금’ 논의 본격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으로는 ‘기초연금 개혁’이 꼽힌다.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로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져가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고령자 과반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관련 지출은 국내

총생산(GDP)의 1%를 이미 넘어섰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을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과도하게 책정된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월 35만원씩 일괄 지급되던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다.

정무위 소속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혁이 포함된 ‘맞춤형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하위 70%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개편하고,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중위소득의 40%까지 차등하는 방안이다. 단, 기존에 기초연금을 지급받던 고령자에게는 소급하지 않는다.

◆ ‘가상자산 선진화’ 속도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현실화를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주요한 현안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해 향후 규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법안이다. 〈6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경찰 협조 약속에도 진입 못한 체육단체…56일째 막힌 핸드볼경기장
▲안철수 “김용범·이덕원·이찬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경정해야”

/사진 뉴스스

▲감사원 “HUG, 보증료 28억원 덜 받아…PF 보증심사도 부실”
▲물놀이 금지구역 무단출입시 과태료…정부, 안전관리 강화

▲‘보완수사권 폐지’ 무력감 휩싸인 검찰…“지휘부 불신” 목소리도
▲해외서 10조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총책 구속기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7일(현지 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에 위치한 현대차 브라질공장을 방문해 차량 품질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브라질 찾은 정의선 “현지 R&D 강화”

현대차그룹 중남미시장 전략 점검
중 대응 친환경차·SUV 확대 추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브라질 현지 생산 거점을 직접 찾아 중남미 시장 공략 전략을 점검했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브라질 맞춤형 친환경차와 SUV를 확대하고, 수소 사업까지 육성해 중남미 핵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3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에 위치한 현대차 브라질공장을 방문해 생산·판매 전략과 중장기 사업 방향을 점검했다. 현대차는 연간 20만대 생산능력의 브라질공장에서 현지 전략차종인 HB20·크레타·i20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남미 권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에는 중국 업체들이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BYD는 현지 생산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 브랜드 판매 4위에 올랐고, 지난해 중국의 브라질 투자액도 전년 대비 45% 증가한 61억달러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응해 브라질 특화 친환경차와 SUV 라인업을 확대하는 한편, 그룹 차원의 수소 모빌리티 및 에너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형 전기차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FFV 기반 하이브리드(FFV-HEV)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정 회장은 중남미 권역 R&D 센터를 찾아 “지속가능한 중장기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지 R&D 기능을 강화하고 파워트레인 현지화를 더욱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산공장에서 지난 6월 생산을 시작한 i20와 크레타의 생산 품질을 점검하고, 누적 생산 250만대를 달성한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브라질은 현대차 글로벌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새로운 경쟁 국면을 극복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전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브라질에서 9만 6723대를 판매해 2019년 이후 상반기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7.1%로 브랜드 5위를 차지했으며, 크레타는 브라질 SUV 딜러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차현정 기자

김동관·김동원·김동선 ‘한화 3형제’ 나란히 승진

5개 계열사 대표이사 등 인사 단행

한화그룹이 김동관·김동원·김동선 3형제를 나란히 승진시키며 3세 경영체제를 본격화했다. 아울러 방산, 우주항공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를 교체하며 미래 성장동력 강화에 나섰다.

한화그룹은 김동관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부회장, 김동선 한화비전 부사장은 사장으로 각각 승진하는 인사를 다음 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화그룹은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방산·해양·우주항공·에너지 사업을 이끌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주도하고 전략적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동원 부회장은 금융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왼쪽부터),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 /한화그룹

이끌며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했고 김동선 사장은 유통·레저·식음료 사업 확대와 반도체 장비 시장 진출 등 첨단산업 분야에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계기로 각 분야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경영안정과 중장기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5개 계열사의 신임 대표이사 인사도 단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부문 대표이사에는 이부한 부사장이 내정됐다. 유럽 법인장과 PGM사업부장을 거친 지상무기체계 연구개발(R&D)·해외사업 전문가로 해외 방산 거점 구축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이끌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양기원 대표이사는 한화글로벌부문 대표, 한화임팩트 사업부문 대표를 지낸 신규 사업모델 전문가다. 우주·방산 분야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

한화임팩트 사업부문 대표이사에는 강정훈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공장장이 내정됐다. 한화자산운용 임동준 대표이사는 미주법인장과 전략사업업



/원관희 기자 wkh@